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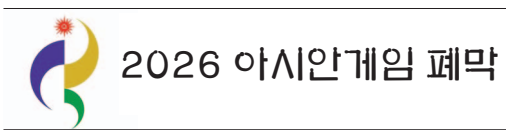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메달을 획득한 서민준(왼쪽부터), 나미다 조엘진, 이재성,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로 선수.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근대5종 이종현, 서창완, 전용태, 성승민 선수.

오토

전남광주 태극전사 빛났다…‘종합 3위’ 힘 보태



2026 아시안게임 폐막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전남광주 소속·출신 태극전사들도 아시아 무대 곳곳에서 메달을 수확하며 대한민국의 종합 3위 수성에 힘을 보탤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 등 모두 150개의 메달을 획득해 중국(금 169·은 89·동 83), 일본(금 83·은 95·동 91)에 이어 종합 3위로 대회를 마쳤다.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40~45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광주·전남 태극전사들은 배드민턴과 축구, 농구, 야구, 근대5종, 사격, 카누, 양궁, 유도, 펜싱, 육상, 요트 등에서 메달 행진에 힘을 더했다.

지역 선수 가운데 가장 빛난 별은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었다.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충·광주체고를 거쳐 안세영은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아미구치 아카네(일본)를 2-0(21-17 21-9)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2연패·임지성 결승골…서창완·이해란도 ‘금빛 환호’

오예진·최민규 멀티메달…이재성 한국新·김민주 은빛 투혼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역사상 최초로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며 세계 최강자의 위용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광주 축구가 키워낸 임지성(스완지시티)도 금빛 피날레를 장식했다.

금호고를 거쳐 광주FC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임지성은 남자축구 대표팀 공격의 한 축을 맡아 활약했다. 특히 3일 일본과의 결승에서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16분 승부를 가르는 결승골을 터뜨려 한국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은 임지성의 한 방을 앞세워 2014 인천 대회부터 이어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연속 우승 기록을 ‘4’로 늘렸다.

광주 소속 선수들의 메달 행진도 이어졌다.

사격에서는 윤서연(KB국민은행)이 송중호, 이견혁과 남자 25m 속사관총 단체전에서 1749점을 합쳐해 중국(1740점)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이 이 종목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2014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봉서린(광주시체육회)은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광주 사격의 저력을 보여줬다.

양궁 오예진(광주은행)은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멀티메달리스트가 됐다.

오예진은 강채영·이윤지와 여자 리커브 단체전 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개인전에서도 결승까지 진출했다. 개인전 결승에서는 쿼크 아닐 모호드(인도)와 세트 점수 5-5로 맞선 뒤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정상 문턱에서 돌아서며 두 번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도에서는 김민주(광주교통공사)가 여자 78kg급 은메달을 수확했다.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안고도 결승까지 오르는 투혼을 발휘하며 생애 첫 아시안게임에서 값진 메달을 따냈다.

카누에서는 광주 소속 최민규(국민체육진흥공단)가 금·은메달을 하나씩 거머쥐었다.

최민규는 조광희·김효빈·장상원과 남자 카약 4인승(K4) 500m에서 정상에 올라 한국의 이 종목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어 선민주와 나선 혼성 카약 2인승(K2) 5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육상에서는 이재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한국 신기록과 함께 값진 동메달을 만들었다.

이재성은 서민준·나미다 조엘진·비웨사와 남자 400m 계주 결선에 나서 38초43으로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신기록까지 갈아치우며 한국 단거리 육상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지역 프로스포츠를 대표해 출전한 KIA타이거즈 김도영·박재현·성영탁도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에서 3-1로 승리하며 2010 광저우 대회부터 이어진 아시안게임 연속 우승 기록을 ‘5’로 늘렸다. 특히 김도영은 결승에서 승부를 뒤집는 결승타를 터뜨리며 우승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전남 소속·출신 선수들의 금빛 활약도 빛났다.

근대5종에서는 서창완(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전용태·이종현과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다. 한국은 4779점을 기록해 정상에 오르며 항저우

대회에 이어 이 종목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여자농구에서는 답양 출신 이해란(삼성생명)이 금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이해란은 일본과의 결승에서 24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한국의 75-70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 여자 농구는 개최국 일본을 적지에서 꺾고 2014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복귀했다.

요트에서는 김장주·이경진(이상 여수시청)이 혼성 470급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두 선수는 10차례 레이스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며 총점 20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마지막 레이스에서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해남 출신 권오민은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결승에서 카자흐스탄과 접전을 벌인 끝에 42-43으로 한 점 차 석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축구에서는 강채림·손화연(이상 강진스완스WFC)이 값진 동메달을 합작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대에 복귀했다. 강채림과 손화연도 대표팀 공격진에서 힘을 보태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3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SOOP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 창단식에 참석해 이만원 구단주, 김세진 감독, 선수단, 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SOOP 수퍼스, 전남광주서 힘찬 첫발…V리그 새 시대 연다

‘SOOP 스타디움’서 창단식…11일 KOVO컵서 첫 실전

여자프로배구 신생 구단 SOOP 수퍼스가 전남광주에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SOOP 수퍼스는 지난 3일 홈구장인 SOOP 스타디움(광주염주체육관)에서 창단식 및 2026-2027 시즌 출범식을 열고 V리그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서수길 SOOP CVO, 이만원 수퍼스 구단주, 이병호 수퍼스 단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관계자를 비롯한 팬 등 5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프닝 공연과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식과 내빈 소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수퍼스의 연고지 협약식, 창단 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이만원 구단주가 협약서에 서명하며 수퍼스와 지역의 동행을 공신화했다. 이후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구단기 퍼포먼스를 통해 수퍼스의 공식 출범을 팬들에게 알렸다.

민 시장은 지역 프로배구의 명맥이 끊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SOOP이 새로운 구단으로 나선 데 의미를 부여했다.

민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프로배구가 여기서 멈출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SOOP이 이어받아 전남광주를 연고지로 선택해줬다”며 “큰 결단을 해준 SOOP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이 내세운 ‘연결과 확장’의 가치와 캐치프레이즈가 전남광주가 나아가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수퍼스의 첫 시즌을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 ‘Build Together Win Together’도 이날 공개됐다. 함께 팀을 만들고 함께 승리하겠다는 신생 구단의 방향성을 담았다. 마스코트는 ‘고고’와 ‘구구’가 팬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배구공 모양의 꼬리가 특징이다.

초대 사령탑 김세진 감독은 첫 시즌부터 목표를

높게 잡았다. 2018-2019시즌을 끝으로 OK저축은행 지휘봉을 내려놓았던 김 감독은 7년 만에 감독으로 복귀해 여자프로배구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김 감독은 “막상 무대에 서고 경기가 가까워지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선수들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며 “팀은 언제나 목표를 우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초대 주장으로 선임된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한다혜도 팬들에게 각오를 전했다.

한다혜는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코트에서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창단식을 통해 공식적인 첫발을 댄 수퍼스는 이제 실전으로 향한다. 오는 8일 KOVO 미디어데이 에 참석한 뒤 11일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KOVO컵대회를 통해 창단 첫 공식 경기를 치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광 출신 신지애, 사상 첫 ‘메이저 그랜드슬램’

일본 여자오픈 연장 혈투 끝 정상…JLPGA 통산 30승 달성

영광 출신 ‘골프 여제’ 신지애(38)가 일본 여자골프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통산 30승 고지를 밟으며 영구 시드를 획득한 데 이어 일본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한 사상 첫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주인공이 됐다.

신지애는 4일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 골프 클럽(파70)에서 열린 J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일본 여자오픈 골프 선수권대회(총상금 1억 5000만엔) 최종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지난 8월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을 제패한 구와키 시호(일본)와 공동 선두에 올라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승부는 연장 세 번째 홀에서 갈렸다.

18번 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1·2차전에서 나란히 파를 기록하며 팽팽히 맞선 신지애는 3차 연장에서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렸다. 반면 구와키는 파에 그치면서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가 찍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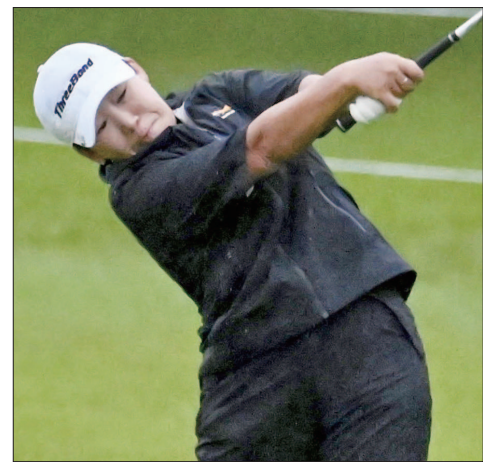
이번 우승으로 신지애는 우승 상금 3000만엔(약 2억5000만엔)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5월 메이저 대회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 파스컵 이후 1년 5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올 시즌 첫 우승도 신고했다.

무엇보다 JLPGA 투어 336번째 출전 대회에서 개인 통산 30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30승 고지를 밟은 신지애는 JLPGA 투어 역대 7번째로 영구 시드도 손에 넣었다. 외국인 선수로는 통산 58승을 기록한 투아이위(대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또 하나의 대기록도 완성했다.

신지애는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서 2승, 투어챔피언십 리코컵에서 2승, JLPGA 챔피언십에서 1승을 거둔 데 이어 마



지막 남은 일본 여자오픈까지 제패했다.

이로써 JLPGA 투어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한 차례 이상 정상에 오른 사상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남기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우승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최종 라운드에서 선두 구와키에게 2타 뒤진 채 출발한 신지애는 2번 홀(파3)에서 첫 버디를 잡았지만 곧바로 3번 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다.

그러나 4번 홀(파5)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곧바로 만회했다.

승부처는 후반이었다. 구와키와 격차가 3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맞은 13번 홀(파4). 신지애는 버디 퍼트를 홀에 집어넣으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이어 14번 홀(파5)에서는 버디를 추가해 2개 홀 연속 타수를 줄였다. 순식간에 선두와의 격차는 1타로 좁혀졌다.

신지애는 17번 홀(파5)에서 다시 한번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 가볍게 버디를 댔으며 마침내 구와키와 동타를 만들었다.

결국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간 신지애는 3차 연장에서 결정적인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